

사회

보호자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 도착하면 장비·의료진 부족

걸도는 응급의료 맴도는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보완 시급 ... 대학병원 투자 늘려야

#지난 17일 오후 사고를 당한 A(43·해남군)씨의 호흡이 곤란해지자 가족들은 인근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벤틸레이터)가 전부 사용중이라는 말에 급하게 병원구급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했다. 구급차에 동승한 의사는 가족이 원하는 조선대병원으로 가기 위해 인공호흡기 확보 여부를 체크했으나 사용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인공호흡기가 여유있는 한국병원으로 방향을 돌리던 차 A씨 상태가 잠시 호전됐고, 인공호흡기가 필요치 않게 되자 가족들의 희망대로 구급차는 조선대병원으로 달렸다. 하지만 조선대병원에 도착한 A씨 상태는 다시 악화돼 한국병원으로 가는 도중 A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 애초 인공호흡기가 있는 한국병원을 찾았다면 40여분의 시간적 여유로 인해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도 이 같은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장비 및 의료진이 확보된 병원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해야하지만 대다수 119구급대나 일반 병원 구급차들은 일차적으로 환자 가족들이 원하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지만 보호자들의 희망대로

하지 않아 절명한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의 등 민원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들도 지역 중추적인 의료 및 연구·교육기관이라는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병원들은 의료진과 병실 등을 감안해 병원 자체적으로 수용가능한 적정대수의 인공호흡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병원 구급차들은 일차적으로 환자 가족들이 원하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지만 보호자들의 희망대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들의 대학병원에 대한 믿음이 짙고, 아직 응급환자이송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대학병원들의 응급의료진 및 시설·기자재에 확신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소방본부 관계자는 “1339의 정보를 제공해 응급 병상과 장비가 여유있는 병원을 찾기도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대로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응급환자는 무조건 응급 시설·의료진이 투입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토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G20 대비 대테러 훈련 1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광주시 소방본부 대원들이 화재 발생을 가상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짝퉁 가방’ 대량 유통 50대에 실형

광주지법, 이례적 선고

자신의 가게와 인터넷을 통해 속칭 ‘짝퉁’ 명품 가방을 대거 유통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징역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도근 판사는 19일 해의 유명 상표를 무단도용한 가방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현모(여·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상표법 위반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 집행유예부 징역형이 선고됐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현씨가 유사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인터넷을 통해 기업형으로 짝퉁을 판매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3월부터 광주시 동구 충장로 모 소풍몰에서 가방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주문자 336명에게 루이비통과 프라다 등 ‘짝퉁’ 가방 3800만원 상당을 팔고, 매장에 ‘짝퉁’ 제품 6500만원어치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매년 급증

전체 44% 차지

광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모두 2261건이다. 이중 만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건수는 전체의 44%인 995건이다. 연도별로는 ▲2007년 243건 ▲2008년 269건 ▲지난해 283건으로 해마다 5~10% 가량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말까지 220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에서 발생한 전체 성범죄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체 성범죄는 2007년 515건에서 2008년 624건, 지난해 703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470건을 넘어섰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1세~40세가 581건(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1세~30세가 576건(25.4%) ▲41세~50세가 428건(18.9%)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경찰서별로는 북부경찰서가 746건(32.9%)으로 최고를 기록한데 이어 서부경찰서 524건(23.1%), 광산경찰서 416건(18.3%), 동부경찰서 318건(14.0%), 남부경찰서 257건(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광주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성형수술 불만 40대女 메시지 남기고 목매

지난 18일 밤 9시20분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에 사는 이모(여·41)씨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형부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숨지기 직전 “미안하다. 집에 와 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장애인 콜택시 20대 증차” 천막 농성

장애인연대 회원들

광주장애인차별연대 회원 50여명은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장애인 콜택시 20대를 확대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콜택시 20대 증차와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약제를 강요하지 말고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장애인연대 회원 15명은 전날 저녁부터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농성장을 찾은 강운태 광주시장과 만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장애인 콜택시 30대를 운영 중이며 내년에 10여대를 들여 추가로 10대를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장애인 콜택시 예약이 폭주함에 따라 일반 택시 5대를 콜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 30대 징역 13년 ‘중형’

광주지법 선고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건물 옥상에 유기한 3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9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류모(36)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발각될까 봐 시신을 옥상에 유기하고 ‘아내가 가출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가 하면 1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

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씨가 결혼생활 내내 불화와 갈등을 빚어온 중 아내의 과격한 말에 격분해 살해했고, 향후 아이들을 양육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6월 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오피스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김모(34)씨가 “몸만 빠져나가라”고 말한 데 격분해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건물 옥상에 내다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000원 때문에 깨진 룸메이트 우정 ○버스비가 필요해 고시원 룸메이트의 현금 2000원을 슬쩍한 2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조모(22)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에 광주시 동구 동명동 J고시원에서 같은 방을 함께 쓰는 김모(22)씨가 책꽂이 위에 놓아둔 현금 2000원을 김씨가 잠자는 틈을 이용해 몰래 가져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조씨와 3개월째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최근 자주 돈이 없어지자 조씨에게 돈의 출처를 물었으나, 계속 발뺌하자 찾김에 경찰에 신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국제보청기) featuring a cartoon of a knight on a horse and text: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본점 (062)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Large advertisement for '김영편입학원' (Kim Young-pil Entrance Exam Academy) with text: '대학편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062) 227-8088',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1월 1일 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